

유럽의 30년 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변화과정(교회사중 근대사)

2026년 예람교회 교회사 연구 발표 : 양재경

1. 유럽의 30년 전쟁 이후로부터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순서

- 가. 영국에서 엔클로저 운동 (젠트리와 요우먼이라는 신계급 등장)
- 나. 케플러의 행성운동에 관한 법칙(1609~1619년)과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1687년)을 기계론적 운명론으로 오해하고 다음 세기에 마르크스 유물론으로 오해하는 과정 ?
- 다.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 라. 프랑스 혁명(1789년)과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패전(1812년)
- 마. 빈부격차와 식민지 인권말살에 대하여 기독교회는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 바. 미국에서의 원주민 대량 몰살과 남북전쟁과 나중에 이어지는 노예 해방령(1862년)
- 사. 네덜란드, 영국과 프랑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경영 (동인도 회사, 인도에서의 세포이 반란(1857년))
- 아.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고(1854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급성장함. 영국은 중국에서 아편전쟁 시작하고 중국이 뒤늦게 깨어남.
- 자. 후발 국가 독일의 급성장과 러시아의 뒤늦은 성장 프랑스-프로이센 전쟁(1870년)
- 차. 러시아의 피의 일요일(1905년의 군중 학살) 10월 혁명(1917년)

=====

2. 영국에서 엔클로저 운동 (젠트리와 요우먼이라는 신계급 등장)

가. [인클로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인클로저(영어: enclosure)는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소규모 토지를 대규모 농장에 합병하는 법률적 절차를 의미한다. 사진 출처 [ENCLOSURE — CHRISTIAN HUBERT STUDIO](#)

나.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은 16~19세기 영국에서 지주나 부농이 공유지, 황무지, 소규모 경작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화한 '종획 운동'입니다. 양모 생산과 농업 합리화를 위한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땅을 잃고 도시로 이주해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AI의 정리)

(1) 배경: 16세기 모직물 공업 발달로 양모 수요 급증, 농업 생산성 향상 필요성 증대



- (2) 전개: 1차(16~17세기): 양 목장을 만들기 위해 공유지/경작지를 폐쇄
 2차(18~19세기): 근대적 대규모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 합병

(3) **결과 및 영향:**

- (가) 농민의 도시 이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 빈민이 되거나 공장 노동자가 됨
- (나) 자본주의 발달: 공유지 소유권이 확립되고 대규모 농업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 (다) 산업혁명 토대: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 공급

이 운동은 토지 소유권이 명확해지는 자본주의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나, 토착 농민들에게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가혹한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이 말은 영국의 정체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당시 영국의 사태를 비판하며 유명해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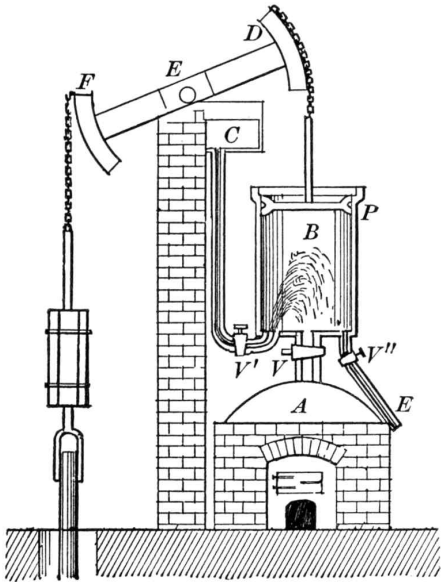
(4) 역사적 의의

- (가) 사유 재산권 확립: 모호했던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확립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나) 농업 생산성 증대: 영세한 소농 중심에서 자본가적 대농 경영 체제로 전환되며 농업 기술이 혁신되었습니다.
- (다) 도시화와 산업화: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이 도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며 영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3. 산업혁명

가.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기술·사회적 대변혁으로, 증기기관·방직기·철도 등 혁신적 발명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사건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연대표입니다.

- (1) 증기기관(1712, 1769) → 산업혁명의 동력원
- (2) 방직·방직기 발명(1733~1785) → 섬유 산업의 대량 생산 체제 확립
- (3) 철도(1804~1830) → 교통·물류 혁신, 산업 확산 가속화



(4) 전기 발견(1831) → 제2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기반 마련

✂ 맥락적 의미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미국으로 확산.

기술 혁신은 도시화, 노동계급 형성,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노동착취, 환경오염, 사회적 격변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동반.

나. 철도의 발달

(1) 스톡턴-달링턴 철도의 최초 노선 길이는 약 26마일(약 41.8km)입니다. 당시 계획은 8마일(약 12.9km)이었지만 실제로는 달링턴에서 스톡턴까지 이어지고, 달링턴에서 다시 여러 탄광 지역(Shildon)까지 연결되면서 더 길게 건설되었습니다.

(2) 상세 정보



개통일: 1825년 9월 27일 위치: 영국 북동부 더럼(Durham) 지역

목적: 석탄을 탄광에서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건설

특징: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정규 운행에 투입한 공공 철도

(3) 의미와 영향

경제적 효과: 석탄을 바닷가 항구로 대량 운송하게 되어 영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

기술적 전환점: 증기기관차가 실제 상업 운송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

확장: 이후 미들즈브러(Middlesbrough)까지 연장되어 항구 도시 발전을 촉진.

흥미로운 점은,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1769) 이후 실제로 철도가 상업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약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다. 영국의 계급구조

(1) 왕

(3) 백작

(5) 기사, 젠트리

(7) 소작농, 임차농

(2) 공작

(4) 남작

(6) 요우먼(장공병), 자유농, 소상공인

(8) 농노, 노예

4. 세계관의 변화

다윈 등이 주장한 진화론에서 파생된 사상들이 유색인종을 공격하거나 노예로 만드는 사상으로 적용되었다. **진화론은 거짓된 가설이라는 점을 창조과학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등이 “적자생존” 개념을 사회에 적용했습니다.

나. 우생학(Eugenics)

인간 집단의 유전적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특정 인종이나 계층을 열등하게 규정했습니다. 원주민·흑인·아시아인 등을 “퇴화된 집단”으로 낙인찍고 배제하거나 강제 동화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다. 인종차별론

진화론을 왜곡해 인종 간 “발달 단계”를 설정하고, 백인을 가장 진화된 존재로 보는 위계적 사고가 퍼졌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와 원주민 공격을 “문명 진보”로 포장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원주민과 식민지 주민을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데 과학적 외피를 씌운 것이죠.

라. 성경적 인간관과의 대조

성경말씀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본이고, 협력과 상호 존중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다.

5.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이 정착하여 원주민들을 살육하게 된 과정

가. 1620년대 초기 정착하면서 와마노그족과 평화 조약 체결, 협력과 생존.

나. 1630~1650년대: 식민지 확장

인구 증가와 토지 필요 → 원주민 생활권 침해 시작.

“선민의식” 강화: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인식.

성경적 평등보다 현실적 생존과 확장이 우선.

다. 1670년대: 갈등 격화

킹 필립 전쟁(1675~1676) → 원주민과의 대규모 충돌.

전쟁 경험이 원주민을 “위협적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성경적 이상보다 “방어와 정복”이 행동 기준으로 자리잡음.

6. 근대 이후 교회가 변질한 과정

가. 교회가 중세시대에 십자군 운동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대의 교회들은 군인교회처럼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발생한 모순들을 경험하고 반발하게 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불신자가 되거나 다른 종교로 옮겨 개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가장 심각하게 변질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서양인들은 십자군 운동과 군목제도(예를 들자면 ‘패튼 대전차군단’이라는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왜곡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십자군 운동은 마구마구 패전하고 전사하거나 노예로 팔

려나가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는 회교도들에게 시온산을 빼앗기게 되었다. 미국의 육군도 지난 세기의 후반부터는 전장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선교에 커다란 장애물과 조롱거리로 작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전쟁을 통하여 실제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무기업자들과 승전국의 장군들 뿐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보면 그와 반대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동안 별다른 무기도 없이 혹독한 수난을 훈련과정으로 겪었다. 순종과 성화라는 체질을 몸에 익히기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 연단받는 과정이 무려 40년이나 되는 장기간의 고난을 무기 없이 감당했다는 역사에 대하여 전쟁을 앞에 두는 현대의 교회는 잊어버리거나 또는 알면서도 무시하게 되었다.

다. 하나님은 약속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40년 또는 70년간의 수난과정을 거친 후에 순종하고 성화된 체질이 습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기를 400년간 기다려 주신 분이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날 미국의 군부와 고위층은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불법을 충만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 다시 십자군 운동과 같은 실패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민족의 신앙과 순종과 성화의 정도가 불충분한 상태로 전쟁하면 패전한다는 경험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다(사사기와 역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훈을 서양인들은 묵살하고 전쟁이라는 도전을 반복하면서 패전과 몰사하는 과정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눠주거나 돌려주라는 희년(레위기 25장 8~17절)을 명령하신다. [성령의 열매 - 평화 \(사26:1-7, 엡 2:11-22\)](#)

7. 자본주의와 무기 사업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책자가 있다)

가. 자본주의는 자유진영 국가들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에서도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금과옥조처럼 신뢰 받지만 자세하게 따져보면 공산주의 보다 과연 더 좋은 점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좋은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본조건을 엄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국제관계와 경제환경에서 기본조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나. 자본주의에 필요한 기본조건이란 아담스미스와 막스 베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을 저술하기 전에 도덕정조론을 더 먼저 저술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도덕성이 더 먼저 확립되어야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 펼쳐질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청교도 윤리를 강조했다. 따라서 청교도 윤리가 도덕적으로 확립된 사회에서만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 펼쳐질 수 있다.

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자본주의는 그와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자유진영국가에서 크게 활약하는 주식회사의 발전과정을 들여볼 수 있다. 주식회사는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발전되었다고 한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식민지 개척시대에 군대를 동원하여

악행을 무수히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대의 핵심요원들과 군대에 필요한 무기업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게 되었다.

라. 군인들과 무기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회에서 고위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경제계와 특히 주요 언론들의 막후에서 무기업자들의 발언권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생산된 무기는 사용된다는 전제를 통하여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비싸게 구매한 무기가 사용되려면 전쟁이 발발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를 전쟁과 살육과 파괴와 환경 오염과 가난과 범죄에 몰아넣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